

화순군, 폐기 대상 수목 도시숲 정원 ‘재활용’ 호응

대형 희귀목 나무은행 옮겨 관리
공원·마을숲 조성 등 공익 활용
2011년 부터 18종 870여주 이식
운주사 실외정원 조성·활용

화순군이 군민을 위한 저탄소 녹지공간 조성·확보에 나섰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버려지고 폐기되는 수목을 공익적 사업에 재활용해 녹지공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나무은행 사업은 군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버려질 수목과 개인이 기증하는 수목 중 가치 있는 대형목 및 희귀목 등을 군에서 관리하는 나무은행에 옮겨 심었다가 공원, 마을숲 조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1년부터 화순읍 감도리 군유지 일원 등 2개소, 1만1250㎡에 배롱나무 등 18종, 870여 주를 이식·관리해 오고 있다.

올해는 화순읍 현대요양병원 삼거리 주변에 원형교차로를 조성하며 폐기될 위기를 겪은 소나무(37주)를 동면 광업소 주변 폐탄장 미세먼지 차단숲(26주)과 도암면 운주사 실외정원 조성 사업(11주) 등에 재활용해 사업예산 절감 및 수목의 가치를 제고하고 녹지공간 조성에 기여한 바 있다.

화순군 김두환 산림과장은 “앞으로도 개발 등으로 인하여 폐기 처리하는 수목 중 가치가 있는 수목은 가능한 폐기하지 않고 옮겨심기해 군민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에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이 개발사업 등으로 폐기되는 수목을 공익적 사업에 재활용하기 위해 ‘나무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인상
담양군, 10월1일부터 적용

담양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일반인 기본요금이 100~120원 인상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이번 요금 조정은 4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담양군이 현재 적용 중인 요금은 2020년 9월 1일부터 유지되고 있다.

전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도내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을 의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지만 담양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운수업체인 (유)동광담양고속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전남도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인 13.3%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 농어촌버스 요금은 관내는 일반인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1200원에서 1280원, 초등학생은 750원에서 800원으로 6.7%가 인상된다.

군 정책사업인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일반인 1000원, 청소년 100원 버스 요금과 광주 시내버스 광역 환승할인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관외는 1800원에서 1920원으로 10km 이내 기본요금에 적용되고 10km 초과 시(군계 외) 현행 131.82원/km에서 138.62원/km으로, 고속도로 구간(13.5km)은 74.31원/km 78.03원/km로 6.95%가 인상된다.

조정·변경된 농어촌버스 요금은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요금 인상으로 군민에게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이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와 처우개선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송아지 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화순군, 24일부터 공급

화순군이 소에 발병하는 ‘림피스킨’이 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재 가축 질병 위기 단계인 ‘심각’ 상태로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사전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제3차 송아지 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접종 대상은 2024년 9월 말 기준 4개월 이상 송아지 2028두이다.

백신은 24일부터 농가에 공급하게 되며 50두 이상 전업농은 자가 접종을 시행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접종하게 된다.

화순군은 접종 시 유실량을 고려해 접종 대상 두수 이상의 충분한 백신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림피스킨은 구제역 백신과 달리 ‘피하주사’를 통해 접종함으로써 접종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올바른 접종법 교육과 공수의사의 협조체계도 구축해 놓았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일제접종을 빠짐없이 시행하고, 자체 예방과 방역·농장 출입 관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여 지역에 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청년과의 한판 토크 콘서트
화순군, 일자리·복지·주거 등

구북규 화순군수가 지난 20일 지역 청년 30여 명과 함께 ‘청년과 군수, 꿈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 개최해 청년들이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소통하며, 화순의 미래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수와 청년과의 토크콘서트는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었으며 청년 협의체, 청년 공동체, 청년 농업인 등 화순군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 일자리·복지·주거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보 및 경제적 자립 지원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판매 지원 △도시 문화 산업 활성화 △청년 농업인 면 단위 주거 지원 △체류·문화 연계 관광 산업 활성화 △만연산 등산로 정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시기 조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군수가 답변하며 상호 소통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토크콘서트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정책에 반영되고 지역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다양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다”며 “꽃을 찾아온 나비, 꿀을 찾아온 벌이 되려는 화순군 청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자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 군민들이 ‘매듭공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매듭공예 교육을 시행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매듭공예 교육 프로그램

지난 20일 화순군이 주최한 ‘매듭공예 교육 프로그램’이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전통 공예 기술을 통해 농촌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지역 소득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매듭공예 교육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운영됐으며 지

역농업인 20명이 참여해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다양한 매듭 기법을 활용한 장신구, 소품, 생활용품 제작 등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완성되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류장수 화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매듭공예 교육이 단순히 전통 공예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농촌 자원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화순군은 2기 매듭공예 교육생을 모집한다. 2기 교육은 10월부터 2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화순=김선중 기자

곡성군, 제3회 섬진강마을영화제 개최

27일부터 29일까지

곡성군이 9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맞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3회 섬진강마을영화제를 개최한다.

23일 곡성군에 따르면 ‘늦었다고 말하는 당신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이번 영화제는 환경 위기 속에서 마을공동체의 조화로운 공존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에 앞서 26일에는 목사동면 들말센터에서 열리는 ‘삼한시대 웅기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웅기장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대형 웅기작품을 만들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어간다.

27일 오후 6시 옥파면 월파관에서 열

리는 개막식에서는 제주도 출신 청년미디어아티스트 김환경 감독의 다큐멘터리 ‘광천동 김환경’이 상영된다. 이 작품은 감독이 철거를 앞둔 광주광역시 광천동에 1년간 직접 거주하며 겪은 경험을 담고 있다. 상영 후에는 김환경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28일에는 곡성역에서 미실란까지 ‘자박자박 마실’을 시작으로, ‘조류를 거슬러’, ‘메이드인 섬진강’ 등의 영화가 상영된다. ‘바람이 전하는 말’ 상영 후에는 양희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영화제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곡성작은영화관에서 노르웨이 작품 ‘연습’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화가 상영된다. 폐막작

으로는 ‘기후 위기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연대, 돌봄, 사랑과 같은 것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지금 여기’가 선정되었다.

영화 상영 사이에는 야외에서 허윤정 트리오와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주의 협연 공연도 펼쳐진다.

김탁환·박진숙 섬진강마을영화제 공동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왜 아직 늦지 않았고, 어떻게 현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흥겨우면서도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귀동 명예운영위원장(곡성군수 권한 대행)은 “영화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용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